

# 잠복 기리시탄(潜伏キリシタン)의 혼인성사(婚姻聖事)

김병락\*  
kimbl4777@hanmail.net

안병곤\*\*  
bgan5319@hanmail.net

## <目次>

- |                                       |  |
|---------------------------------------|--|
| 1. 머리말                                | 3. 『히라도 마을 인별 대장(平戸町人別生所糺)』<br>(1642년)에 나타난 혼인성사       |
| 2. 비밀 신앙 공동체의 성립 배경과 내혼(內婚)<br>의 불가피성 | 4. 『기리시탄 일가 인별 대장(宗門心得違者一家<br>内限人別帳)』(1805년)에 나타난 혼인성사 |
| 2.1 비밀 신앙 공동체의 성립 배경                  | 5. 마무리   |
| 2.2 비밀 신앙 공동체 내혼의 불가피성                |  |

主題語: 데우스(Deus), 기리시탄(Christão), 혼인성사(sacrament of matrimony), 내혼(intermarriage), 콘프라리아  
(confraria)

##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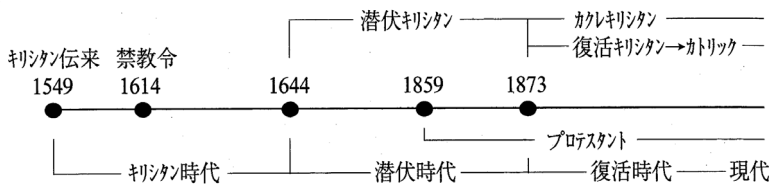
전국시대(戰國時代)인 1549년 일본에 전래된 그리스도교는 때때로 탄압을 받으면서도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간다. 그러나 65년이 지난 1614년 막부(幕府)에 의해 ‘선교사 추방령(伴天連追放令)’이 내려짐으로써 제도적·조직적인 탄압을 받게 된다.<sup>1)</sup> 이는 선교사의 국외 추방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린 일련의 기리시탄(キリシタン, 그리스도교) 금교령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는 조치로 1873년(明治6年) 해금(解禁)까지 260여 년간에 걸친 탄압의 원점이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박사과정

\*\* 경상대학교 대학원 일본학과 교수

1) 신국사상(神國思想)의 기초 위에 허다한 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일본과 정면충돌하게 되고, 게다가 집권체제를 위협할 잠재적 세력으로 지목받은 일신교(一神敎) 기리시탄은 1587년(天正15年)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선교사 추방령을 시작으로 내몰리기 시작한다. 「伴天連(バテレン)」은 당시 padre(パードレ, 神父)의 음역이며, 기리시탄(Christão)은 1549년 그리스도교 전래에서 해금된 1873년까지 일본 그리스도교나 신자를 일컫는 용어이다.

된다. 추방령에도 불구하고 잠복 사목 활동을 하던 최후의 사제 고니시 만쇼(小西マンショ)<sup>2)</sup>가 1644년 순교 당하여 교계제도마저 무너진 상황에다가 막부의 탄압과 개종 정책에 내몰리던 잠복 기리시탄(潜伏キリシタン, 잠복 그리스도인)들은 불교나 신도의 신자로 위장·잠복하여 비밀 신자 조직 속에서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 해금을 맞이하게 된다.(기리시탄 시대 구분에 대하여 <그림 1> 기리시탄 약사 참조)



<그림 1> 기리시탄 약사(略史)(宮崎賢太郎 2008:19)

잠복 기리시탄은 전국 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 이 사실은 기리시탄 탄압에 대한 막부 측의 기록이나 기리시탄 유물(오라쇼, 신심 도구, 묘비 등) 등이 증명하고 있으며, 해금 직전 자국민의 종교 활동을 위하여 입국한 선교사들의 기록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슈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은 탄압과 순교<sup>3)</sup> 기성 종교와의 습합 등의 영향으로 해금을 맞이하기 전 조직이 와해되고 만다.

기리시탄의 공교요리(公敎要理, 교리서)인 『도치리이나 기리시탄(どちりいな きりしたん)』(1591)에는 「교회의 일곱 가지 성사(さんたゑけれじやの七のさからめんとの事)」<sup>4)</sup> 즉 세례성사(洗禮聖事), 견진성사(堅振聖事), 성체성사(聖體聖事), 고해성사(告解聖事), 병자성사(病者聖事), 성품성사(聖品聖事), 혼인성사(婚姻聖事)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다. 이 가운데 혼인성사

2) 기리시탄 다이묘로 알려진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외손자로 쓰시마(對馬) 출생. 1614년 선교사 추방령으로 마카오로 추방됨. 1627년 사제가 되고 1632년 일본에 귀국하여 기나이(畿内, 京都 근방)에서 포교활동을 하다가 1644년 체포되어 처형됨.

3) 순교자 수에 관하여는 연구가에 따라 다른데, 먼저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신하요 儒學者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는 20-30만 명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치스리크(フーベルト・チースリク, 사제·교수)는 이 숫자가 과대하다고 보고 45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6년 라우레스(ヨハネス・ラウレス, 사제·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교회자료, 지방자료 등 기록에 근거한 순교자의 수는 4,045명이다. 그러나 발견되지 않은 사료와 소실된 사료,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순교자도 있을 것이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실제 순교한 수는 한층 많으리라 본다.

4) “성사는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 주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일곱 가지 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주교회의 교리교육 위원회(2011)『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 교리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p.130 참조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167968&path=111027141705> (검색일 2015.1.20)

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이 성사는 교회가 가르치듯이 남편이나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이로써 평화롭게 살아가고, 데우스(Deus, 하느님/하나님)가 가르치시는 자연의 법칙대로 자손 번영을 위하여 데우스가 은총을 주시는 성사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혼인성사가 성립하기 위한 선행조건은 칠성사의 첫 번째이며 이 단계 없이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세례성사이며, 기타 근친이나 이혼자, 이교도 등 방해(장애)되는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海老沢有道他校注 1976:63-72, 195)

본고는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 가운데 이러한 혼인성사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비밀 신앙 공동체의 출현 배경과 혼인을 하면서도 비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환경에 대하여 살펴본 다음, 사료를 통하여 혼인성사의 실례와 특이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혼인성사가 단순히 그들의 습속에 지나지 않는지, 아니면 그 속에 기리시탄 신앙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짚어 보고자 한다.

관련 문헌으로는 막부 측의 기리시탄 탄압과 관련한 기록이나 검거된 기리시탄으로 부터의 진술 기록, 잠복 기리시탄의 전승 이야기 등인데 내용면이나 지역적으로 제한적이며, 잠복 기리시탄의 혼인성사에 관한 선행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상태이다.

## 2. 비밀 신앙 공동체의 성립 배경과 내혼의 불가피성

### 2.1 비밀 신앙 공동체의 성립 배경

선교사 및 동숙(同宿)<sup>5)</sup> 등의 검거와 처형으로 1634년 무렵 잠복 선교사는 겨우 10여 명에 지나지 않게 되고 선교 활동마저 거의 불능상태에 이르게 되자, 신앙을 서로 격려하며 병자나 빈궁한 자들을 도와왔던 신앙 공동체 콘프라리아(*confraria*, 信心會)가 선교사를 대신하여 교화 활동의 중심이 되면서, 효율적으로 막부의 검색을 피하고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지하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여기에 사제의 역할을 대신하고 의식을 집행할 지도자를 세워 독자적인 교회력에 따른 행사나 예배, 세례 등을 행하며 신앙의 암흑기를 지나게 된다.

기리시탄 검색은 시마바라의 난(島原の乱, 1637-8)<sup>6)</sup>을 겪으면서 기리시탄 교도의 위력을

5) 장차 사제나 수도사(修道士*imāo*)를 희망하는 자로 교회에 거주하면서 장의(葬儀)나 미사, 세례, 설교, 교리 교육 등에서 선교사를 도와고, 기타 성구 보관, 내방객의 접대, 문서수발 등을 행하였다. 예수회의 경우 1609년 사제 63명, 수도사 74명일 때 동숙은 301명이다.(柳田利夫 1978:56)

6) 에도시대 초기 막부의 기리시탄 탄압과 영주의 확정 등에 대항하여 1637년 12월 11일 시마바라(島原,

실감한 막부에 의해 더욱 엄격히 시행된다. 물론 여기에는 천민으로 분류되는 에타(穢多)<sup>7)</sup>나 비인(非人)<sup>8)</sup>까지도 예외 없이 관리의 대상이 되는데 기리시탄 색출을 위한 주요 검색제도는 다음과 같다.

### (1) 종교조사대장(宗門改帳) 제도<sup>9)</sup>

종교조사대장(宗門改帳)은 기리시탄 적발을 목적으로 한 영민(領民)의 종교정황을 조사 기록한 대장이다. 또한 이 대장에 불교 신도로 기록되기 위해서는 데라우케(寺請)<sup>10)</sup>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제도의 도입에서 소멸까지의 개략은 다음과 같다.

1614년 교토쇼시다이(京都所司代)<sup>11)</sup>에서 배교 기리시탄(転びキリシタン)으로부터 배교의 증명으로 사원이 발행한 단가 등록증인 데라테가타(寺手形)를 접수한 것이 데라우케의 배경이 되었는데 이를 전후하여 종교조사대장 제도가 도입된다. 이후 1634년 기리시탄으로 융성했던 서 일본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작성된다. 막부는 이듬해 1635년 전 다이묘(大名, 봉록이 1만 석 이상인 영주)에게 조사·보고토록 하였고, 시마바라의 난 후 1640년에는 종교조사 봉행(宗門改役)<sup>12)</sup>을 설치하는데 기리시탄 금교 정책의 중심인물인 이노우에 마사시게(井上政重)<sup>13)</sup>를 임명한다. 1665년에는 비로소 다이칸(代官) 및 다이묘 배속의 종교조사 전담 관리를 설치하여 매년 영민을 조사하고 배교 기리시탄 등을 보고토록 함으로써 일반화된다.<sup>14)</sup> 1873년 기리시탄 금교령 철폐와 더불어 폐지되지만,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어 온 영향으로 여전히

---

나가사키현 남동부 島原半島에 위치)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농민 반란이다. 여기에는 기리시탄 소년 아마쿠사 시로(天草四郎, 1623-38)를 총대장으로 하고 기리시탄 신앙으로 단결된 37,000여 명(나카무라 다다시(中村實)의 연구에 의하면 26,800명)의 저항 세력이 가담하였는데 이듬해 1638년 4월 11-12일 126,000여 명으로 구성된 막번(幕藩) 연합군의 총공격으로 종결된다. 농성하고 있던 하라성(原城)이 함락되자 모두 살해되었으며 연합군측도 8,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게 되고, 양 군의 시체는 전장 청소(戰場清掃)라는 명목으로 모두 바다에 던져진다. 「島原一揆」「天草の乱」「天草一揆」「島原・天草の乱」「島原・天草一揆」라고도 한다.

- 7) 거주지가 제한되며 주로 피혁업에 종사하고 범죄자의 체포나 죄인의 처형 등에 사역한 자.
- 8) 결식으로 살아가는 빈민.
- 9) 종교조사대장(宗門改帳)은 종래의 호구조사 양식인 인별 대장(人別帳)에 종교상황을 추가 기입한 것이며, 이 명칭은 17C 중기 이후 인별 종교조사대장을 뜻하는 슈몬닌베쓰아라타메쑨(宗門人別改帳) 또는 슈시닌베쓰쑨(宗門人別帳)로 바뀌게 되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명칭과 양식, 기재 내용에 차이가 있다.
- 10) 전 국민으로 하여금 어느 사원이든지 단가(檀家)로 등록하게 하고, 단나사(檀那寺)에서는 기리시탄이 아님을 증명하게 한 제도이다.
- 11) 교토의 치안유지 및 감찰을 담당한 부서.
- 12) 기리시탄 봉행(キリシタン奉行)이라고도 불린다.
- 13) 徳川家康의 가신으로 기리시탄 금교 정책의 중심인물로서, 당시 로쥬(老中) 아래에서 다이묘나 조정의 감시역인 오메즈케(大目付)이다.
- 14) 吉利支丹宗門穿鑿の儀、老万石以上の面々は、今度仰せ出され候如く役人を定め、家中領内を毎年断絶なく相改めらるべき事…(清水紘一 1985:209-210)

소속 사찰(寺刹)과 씨족신(氏神)을 모신 신사(神社)는 기재되다가 1885년에야 사라지게 된다.

이 제도는 종교조사의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대장에는 단나사(檀那寺)뿐만 아니라 호주와 가족, 하인 등의 이름, 성별, 연령 등도 기록되어 호적의 역할을 하였음은 물론 인구조사의 자료로도 활용된다. 또한 종교조사대장은 매년 또는 수년에 1회씩 조사와 신고에 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작성 주체는 17C에는 사원의 승려가 담당하였으나 데라우케 제도의 시행 30년 정도가 흐르자 사원의 수입이 증대되고 승려의 생활이 화려해짐과 동시에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여, 18C에는 촌장이나 마을 관리(村役人)로 옮겨진다. 이로서 사원의 권한은 축소되었으나 보증의 업무는 당연한 것이 되어 데라우케 제도는 지속되었던 것이다. 이 제도는 영주에 있어서도 영민의 파악과 동시에 기리시탄 단속이 가능했으므로 매우 효율적 제도임을 알 수 있다.

**(2) 유족장(類族帳) 제도**

1687년에 도입된 제도로 기리시탄 배교자의 친족을 대상으로 하여 출생과 사망, 결혼, 이혼, 이사, 개명, 삭발, 종교 정황 등을 1년에 2차례 조사하여 종교조사 봉행(奉行)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1695년에는 친족 범위가 남자인 경우 종전의 5대에서 7대로, 여자인 경우 종전의 3대에서 4대로 강화되었는데, 이는 장기간에 걸친 감시를 통하여 기리시탄으로 회심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3) 5인조(五人組) 제도**

5인조는 인접하는 5호를 한 단위로 묶은 조직으로 기리시탄 적발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상호 감시토록 하는 조치이다. 생존하려면 서로 감시하고 수상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한 막부의 수단인 셈이다. 연대 책임으로 가해지는 벌이 얼마나 엄중하였는지는 다음의 1643년 3월 16일자 『나가사키 네덜란드 상관 일기(長崎オランダ商館日記)』에서도 알 수 있다.

나가사키에서 기리시탄 신심 도구를 소지하고 있던 몇 명이 발견되어 사형에 처해졌다고 들었다. ...종전은 5호가 한조가 되어 그 중 한 집에서 기리시탄이 발견되면 각 호의 부부 및 남자는 모두 사형되고 여자들은 제외되었다. 그 후 5호 중에서 기리시탄이 한 사람 나오면 각 호 한 사람은 사형, 나머지 4인은 50일간 구금되었다. 지금은 각자가 기리시탄이 아니라고 보증인을 세우고 만일 기리시탄임이 판명되면 보증인도 함께 사형된다. ... (清水紘一 1985:194, 재인용)

#### (4) 신고 포상제(訴人褒賞制)

1614년 1월 31일 전국적인 기리시탄 금령과 이에 따른 선교사 등의 해외 추방에도 불구하고 당시 선교사의 3분의 1정도는 잠복하여 사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수도회에서 국내로 잠입하여 들어오게 되자, 이의 대응책으로 선교사나 기리시탄을 밀고(密告)한 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1618년 나가사키에서 최초로 시행될 때에는 수도사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차차 지역의 확대와 동시에 잠입 선교사로부터 일반 기리시탄까지 확대하여 나갔으며, 1637-8년에 걸친 시마바라의 난 이후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1682년에는 배교 후 다시 기리시탄이 된 자, 즉 회심자(立返り切支丹)를 고발하면 일반 신자의 3배(銀 300枚)를 지급하는 항목이 생길 정도로 기리시탄의 재건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였다. 이 항목의 신설은 불교 신자로 등록하면서도 기리시탄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잠복 기리시탄의 존재를 잘 말해 주고 있다.

#### (5) 에후미(繪踏) 제도

에후미는 그리스도나 마리아상을 밟게 하여 기리시탄이 아님을 증명케 하는 제도이다. 최초에는 배교자에게 배교의 증명으로서, 또는 배교시키기 위하여 실시되었는데 차츰 기리시탄 적발의 수단으로서 행해지게 되었다. 이 때 발로 밟는 성화상(聖畫像)을 가리켜 후미에(踏繪)라고 하는데 이것은 최초 종이나 나무판, 주물로 만들다가 1669년 나가사키의 주물사 유사(萩原祐佐)가 청동제 20매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 중 19매는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에후미의 효과는 성화상을 밟음으로서 ‘배교자에서 다시 회두(回頭)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실망감을 주어 다시 기리시탄으로 복귀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에후미는 1628년 나가사키로부터 시작하여 규슈 각지에서 시행되다가 나가사키의 경우 1858년 폐지되고<sup>15)</sup> 그 외 규슈 각지에서는 1872년(明治5)에 폐지된다.<sup>16)</sup>

에후미 당일의 모습에 대하여 1690년 내일한 의사이며 박물학자인 독일인 엥게르베르트 캠퍼르(Engelbert Kaempfer, 1651~1716)의 저서 『에도참부여행일기(江戸参府旅行日記)』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정초에는 에후미를 행한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화상을 발로 밟는 것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나 다른 성자의 상을 발로 밟아 예수와 그 사도들을 거부하고 저주하는 증거로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15) 1858년 7월 29일 체결된 日米修好通商条約 第八條 「…双方の人民互に宗旨に付ての争論あるべからず。日本長崎役所において踏繪の仕来りハ既に廢せり」에 근거하여 폐지됨.

16) 신흥적법이 明治四年太政官布告第一七〇号로 공포, 이듬해 1872년에 시행되기까지 에후미 실시.

를 오독(汚瀆)하는 의식은 정월 2일부터 촌장과 마을 사람 순으로, 한 곳에서 매일 네 마을을 하고 모두 6일만에 끝난다. 거기에는 촌장과 그 보좌역 3인, 당일 후미에 운반자 2인이 행사의 집행자로서 관여한다. 화상은 특별 제작된 상자에 넣어져 있으며 길이 약 30cm의 황동으로 주조한 것이다.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조사관은 한 장의 다다미 위에 앉고 일가족은 전부 같은 곳에 모여, 인근 주택에서 이 장면을 구경하기에 협소하면 그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은 가운데 조사한다. 황동상(黃銅像)은 마루 위에 놓고 담당 서기는 에후미 장부를 편 다음 이름을 모두 부르고 불린 사람은 나아가서 성상 위를 가거나 밟고, 견지 못하는 아이는 어머니가 안고 그 위를 밟아야 아이가 밟은 것처럼 된다. 이리하여 식이 끝나면 호주는 장부에 날인하여 그 집에 대한 조사의 증거가 되고 조사관은 이것으로 봉행(奉行)에게 증명시킨다. 모든 마을과 가족에게 이 의식이 끝나면 검사관 자신도 성상을 밟고 이어 촌장 등의 순으로 밟음으로써 의식의 종료를 알린다.

(清水紘一 1985:190-191, 재인용)

한편 에후미의 고안자인 종교조사 봉행 이노우에 마사시게(井上政重)는 에후미의 정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노파나 여자들은, 데우스(Deus, 하느님/하나님) 성상(聖像)의 후미에를 밟아라! 라고하면, 상기되어 쓰개를 벗고 가쁜 숨을 쉬며 땀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밟는 모습도 보인다.”<sup>17)</sup> 여기에 나타난 모습은 비신자가 아닌 신자에게 일어나는 심리적 갈등일 것이다.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려고 후미에를 밟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닥칠 것이고, 그렇다고 살기 위해 성상을 밟으면 주님을 또 다시 모독하고 부인하는 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대부분의 신자들은 후미에를 밟는 편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행위에 철저한 통회의 기도를 통하여 용서를 비는 방법으로 신앙을 후손에게 전승하게 된다.

## 2.2 비밀 신앙 공동체 내혼의 불가피성

비밀 신앙 공동체의 운용 목적은 사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조조직을 만들어 교회력에 의한 연중행사나 예배, 세례, 장례 등의 의식(儀式)을 통하여 신앙을 전승하여 가는 것이다. 이 공동체의 운명은 조직 안에서 끊임없이 교류하면서도 비밀이 유지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기리시탄이 아닌 자와 혼인이 이루어진다면 밀고에 의한 공동체 파괴의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사전 허락된 경우를 제외하면 공동체 내혼만이 대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7) ウバ並女ナドハ、デウスの踏繪ヲフマセ候〜バ上気サシ、カブリモノヲ取捨、息合アラク汗ヲカキ、又ハ女ニヨリ人ノ見エザル様ニ踏繪をイタバキ候事モコレ有ル由(清水紘一 1985:191, 재인용)

예를 들면 잠복시대 약 500명이 살던(해금 직전에는 약 200호) 이마무라(今村, 福岡県 三井郡 소재) 마을의 문패는 어디를 가더라도 히라타(平田)씨와 아오키(靑木)씨이고 그 외의 성씨는 4·5호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은 잠복 기리시탄들만이 모여 사는 특징으로 마을의 결속이 강하다는 것과 친족 동씨의 혼인이 많았다는 표시이다. 이리하여 수 백 년 동안 신앙을 지켜왔던 것이다.(박양자 2008:362-4) 또한 소토메 잇쓰(外海 出津, 長崎市 북서부 소재)에는 해금 직전 300호 가량(약 2,000명) 있었는데 쇼야(庄屋, 촌장) 및 이하 관리들이 모두 기리시탄이어서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浦川和三郎 1928:339) 우라카미(浦上)<sup>18)</sup> 마을도 주민 거의 모두가 기리시탄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아마쿠사(天草) 다카하마촌(高浜村, 熊本県 天草市 소재)과 같이 주민의 10% 정도 되는 구성원으로도 공동체를 유지해 온 곳이 있다.<sup>19)</sup> 결과적으로 보면 촌내혼(村內婚)<sup>20)</sup>이라는 에도시대(江戸時代)의 관습 속에서도 기리시탄 공동체 내혼은 검색을 피하면서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 취할 수밖에 없었던 자구책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토메·고토·나가사키 등지에 전승되어 온 『천지개벽(天地始之事)』<sup>21)</sup>은 선교사로부터 들은 성서의 일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일본 각지의 신화나 전설이 첨가된 성서 이야기이다. 여기서 아담의 자녀 지코로(ちころ)와 단호(たんほう)는 남매이면서 결혼하여 자손을 낳는다. 이러한 근친혼은 한국 및 중국의 홍수 신화를 비롯하여 일본의 여러 신(神)과 섬을 낳은 이자나키(伊弉那岐神)와 이자나미(伊弉那美神)라는 남녀 신에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신화의 도입은 잠복 기리시탄 신앙 공동체에서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 배우자를 공동체 내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서 데우스는 벤보(ベンボウ, 여기서는 지옥)<sup>22)</sup>에서 파라이주(ぱらいそparaiso, 천국)에 이르는 12천(天)을 만드는데 그 중 파라이주 바로 아래의 천(天)인 고로테루(ころてる)에서 데우스를 섬기며 살고 있던 아담(あだんAdam)과 하와(ゑわEua)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벌을

18) 우라카미(浦上)는 現 나가사키시(長崎市) 북부에 위치하는 옛 지명. 우라카미 야마자토촌(山里村)은 모토바루(本原), 나카노(中野), 요노(家野), 사토(里), 마코메(馬込) 등 다섯 고(郷)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코메를 제외한 4곳은 거의 모든 주민이 기리시탄이다.

19) 1805년 아마쿠사 검거(天草崩れ) 사건 당시 연루된 4개촌 중에 다카하마촌(高浜村)은 총인구 3,320인, 기리시탄 316인으로 기리시탄이 9.52%이다.(平田正範 2001:204)

20) 혼인 상대자의 부족 등 경우에 따라서 他村이나 他郡까지 혼인 권역이 확대된 경우도 있다.

21) 천지 창조, 인간 창조와 타락, 홍수 심판, 예수 생애 등의 성서 내용에다가 전설이나 신화를 가미한 성서 이야기로 소토메, 고토, 나가사키계에 전승되고 있다. 탄압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신앙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또한 불교도와 다른 의례는 무슨 이유인가라는 끊임없는 의문에 기리시탄 신앙의 존재 의식을 명확히 할 신화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紙谷威広 1986:27)

22) 문맥상 인페르누(いんへのinferno, 지옥)를 말하고 있음. 벤보는 림부(りんぷlimbo, 古聖所)의 와전으로 보이지만, 림부는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유아의 경우처럼, 원죄 상태로 죽었으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곳을 말하므로 이 용어도 적합하지 않다.



받게 된다. 그 결과 아담은 400여년 통회하면 구원받게 되고 아내 하와는 사과나무 열매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권한 중죄로 인해 중천(中天)의 개(犬)로 떠돌게 된다. 또한 타락 이전에 낳은 자녀 지코로(ちころう)와 단호(たんほう)도 12천의 하나인 만보(マンボウ, 地上/下界)에 내려와 살게 되는데 데우스는 남매에게 이러한 벌을 내리면서도 구원의 때가 있을 것을 말하며 거주할 곳도 지시하고 있다.

ゑわの子どもは、これよりしたの下界にすみ、畜生を食し、月星を拝み、後悔して、まいるべし。一度は天の道をしらすべし。さて、下界に合石といふ石あり。これを尋てすむときは、かならずふしぎあるべし。(海老沢有道他 1976:385)

하와의 자녀는 이제 지상에 살면서 짐승을 먹고 월성을 섬기며 후회하며 지낼 것인데 한 번은 구원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는 온석(溫石)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 그곳에 거주하면 반드시 은총이 함께할 것이다.

さて、ゑわの子どもは立別、合石の石ほとりでゆきあい、かゝる所に、天より拔身おちつらぬき、これぞ、まへかた、天帝のふしぎの御しらせと、兩人はつとおどろきて、女はおもわずもちたる針をなげかけ、胸に打ちこみ、血をながし、又男は櫛をなげかけ、たがいに他人となり、それより女閉口して夫婦の契をなしけり。(海老沢有道他 1976:385-386)

한편 하와의 자녀는 헤어진 후 온석 부근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칼이 그곳을 가로지르며 떨어지자 두 사람은 이러한 데우스의 신비함에 놀란 나머지, 여자는 엉겁결에 바늘을 던지니 그것이 남자의 가슴에 박혀 피를 흘리게 했고 남자는 빗을 던지니 이로부터 남매는 서로 타인이 되어 부부의 언약을 맺었더라.

온석은 건축이나 담장, 무덤 등에 널리 사용될 정도로 소토메(外海)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데<sup>23)</sup> 바로 『천지개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온석이 있는 곳ियो 거주할 땅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잠복 기리시탄이 고난 중에도 이곳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다. 남매가 이곳에서 만났을 때 하늘에서 칼이 떨어짐으로써 둘 사이가 갈라지고 남자가 피를 흘림으로써 혈연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혼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화를 가미한 이러한 이야기의 등장은 그들의 시조(始祖)가 온석에 거주하였으므로 현재의 잠복 기리시탄 자신들도 이곳에 거주하는 것이며, 기리시탄의 가르침은 근친혼을 금하는 것이므로 데우스는 근친 사이를 남이 되게 하여 결국 합법적으로 인정해준다는 논리를

23) 소토메(나가사키시 북서부에 위치) 지역은 원주민에게 네리베(練扉, 찰흙과 기왓장을 교대로 쌓고 위를 기와로 인 담)로 알려진 결정편암(온석)에 의한 석적 건축(石積建築)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村田明久 2009:467)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실제 사촌간의 혼인이 많았다.(근친혼은 비기리시탄에서도 종종 행해짐) 이러한 관습은 이후 가쿠레키리시탄(かくれキリシタン/隠れキリシタン/カクレキリシタン, 숨은 그리스도인)<sup>24)</sup>에도 전승되어 왔는데 다음과 같은 후루노 키요토(古野清人)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쿠레키리시탄은 작은 공동 사회로 신앙 조직을 만들어 유지해왔는데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나 행사를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 공동 사회는 일종의 비밀 결사의 형태이므로 필연적으로 가족 간의 혼인에 있어서도 내혼(동족결혼, endogamy)이었다. 동질적인 마을 내에서 또는 다른 기리시탄 마을에서 배우자를 찾았다. (古野清人1966:255)

한편 에도시대의 비인(非人)은 집이 없거나 일할 곳이 없어 걸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빈민을 말한다. 이들은 집단을 형성하면서도 가족 형태를 이루며 거주하였는데 오사카의 경우 4개소로 집중되어 있었으며, 이 중 1594년 가장 먼저 형성된 덴노지 비인(天王寺垣外)<sup>25)</sup>만해도 17C말 600명에 이른다. 이곳에는 기리시탄 적발이나 체포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도피한 자도 포함되어 있는데 신앙을 지키다가 1637년 처형된 젠사이(善齋, 摂州国出身)를 제외한 나머지, 즉 비인 1세대와 그들의 자녀들은 1631년 강제 개종하게 된다. 또한 이웃하는 도톰보리 비인(道頓堀垣外)에 대한 유족장(宗旨人別帳)에 관한 사료는 없음)을 보면 17C 후반에 이르러 내혼이 어느 정도 성립되어 외부에 대하여 폐쇄화되었는데 이는 덴노지 비인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으로 본다.(塚田孝 2013:7-53 참조)

그러므로 개종 이전 혼인이라면 대부분 혼인성사가 성립될 것이다. 개종 이후의 시기라면 배교 기리시탄끼리 또는 배교 기리시탄 자손(類族)의 혼인이 되는데, 이는 유족장(類族帳)이나 인별종교대장(宗旨人別帳)상으로 그렇게 나타날 뿐 실제로는 잠복 기리시탄의 위장도 많을 것이므로 내혼을 중심으로 한 혼인성사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4) 1873년 해금(解禁)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래 당시의 가톨릭교회로 복귀하는 것을 또 하나의 개종으로 여기면서 여전히 잠복 기리시탄의 신앙을 이어가는 자이다.

25) 덴노지(天王寺)는 시텐노지(四天王寺) 남쪽에 위치한다. 비인은 1871년(明治4년) 태정관 포고로 에타·비인이라는 호칭과 신분이 폐지(穢多非人ノ称ヲ廢シ身分職業共平民同様トス)되고, 이듬해 오사카부(大阪府)가 걸식자에게 음식물 등을 일절 주지 말 것(一切、乞食に食物等を与るを禁ず)을 명령함에 따라 해체된다.(塚田孝 2013:25, 243)

### 3. 『히라도 마을 인별 대장(平戸町人別生所糺)』(1642년)에 나타난 혼인성사

기리시탄시대 전반기는 예수회의 선교 방침이 다이묘(大名, 영주)<sup>26)</sup>들의 신앙이나 이해관계와 맞물려 다이묘가 먼저 기리시탄으로 개종한 후 이어 가신들과 영민들이 개종하는 이른바 「위에서 아래로(上から下へ)」의 개종 또는 집단개종이 성행하였지만, 그 후반기에 있어서 거의 모든 다이묘 및 잠복시대의 모든 다이묘는 가신들과 함께 기리시탄 영민들의 탄압에 앞장서 왔기 때문에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들 무사 그룹은 제외하고 평민의 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잠복시대는 데라우케(寺請) 제도로 인해 전 국민이 사찰에 등록되어 있고 문헌상으로도 불교 신자로 기재되어 있어 혼인성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잠복시대로 접어들기 불과 2년 전에 작성된 『히라도 마을 인별 대장(平戸町人別生所糺)』(1642년)에는 개인별 개종 전후의 종교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 혼인성사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문헌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대장이 만들어진 시점은 1635년 전국적으로 강제된 종교조사대장(宗門改帳) 제도로 인해 개종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던 시기이며, 잠복한 선교사도 수명에 지나지 않아 잠복시대의 상황이 이미 전개되고 있었던 만큼 잠복시대 혼인성사의 실상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히라도 마을(平戸町)을 포함하고 있는 나가사키는 1614년 전국적 금교령 이전에도 기리시탄 도시로 부흥하였고 금교령 이후에는 잠복 선교사 대부분이 이곳에서 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부터 잠입해 오던 선교사들의 본거지이기도 했다. 그래서 막부는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리시탄 개종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된다.

이 대장은 개인별 종교 정황 조사부이며 여기에는 성명, 연령, 출생지, 종교, 살아온 주요 행적 등을 기록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이 기리시탄의 개종 여부 파악과 지속적인 감시에 있기 때문에 전 주민은 원래부터 불교 신자이거나 기리시탄에서 개종한 불교 신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 대장 마지막에 기재된 주민 총수 228명<sup>27)</sup> 가운데 개종 전 기리시탄이었던 자는 122명이다. 여기서는 조사 당시 부부(夫婦)가 모두 생존하는 32쌍 가운데 개종 전 기리시탄이라고 기록된 21쌍을 대상으로 혼인성사가 성립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며 그 결과는

26) 최초의 기리시탄 다이묘 오무라 스미타다(大村純忠)를 비롯하여 아리마 하루노부(有馬晴信), 오토모 소린(大友宗麟), 다카야마 우콘(高山右近),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 등이 있다.

27) 개인별 기록을 토대로 할 때 연구자에 따라 225명, 226명 등으로도 나타나, 기재된 주민 총수 228명과는 약간의 차가 있다.

다음 &lt;표 1&gt;와 같다.

&lt;표 1&gt; 개종 전 기리시탄으로 기재된 부부에 대한 혼인성사 여부

성명	관계	연령	生地	기리시탄 입교			혼인 추정		혼인 성사 여부	개종		단나사
			生年	연도	연령	장소	연도	연령		연도	연령	
①石本新兵衛	夫	80	壹劔	1576	14	長崎 大村町	1586 이전	24 이전	◎	1626	64	法華宗 本連寺
			1562									
女房	妻	74	平戸	1577	9	長崎 大村町	1586 이전	18 이전	◎	1629- 32	61-64	法華宗 本連寺
			1568									
石本九郎 右衛門尉	子	56	長崎	-	幼少	長崎	/	/	/	1626- 28	40-42	法華宗 本連寺
			1586									
②庄次郎	夫	31	天草	-	前廉	天草	1636 이전	25 이전	?	1629- 32	18-21	浄土宗 大音寺
			1611									
女房	妻	30	筑後	1623	11	長崎 平戸町	1636 이전	24 이전	?	1629- 32	17-20	浄土宗 大音寺
			1612									
ふく	女	6	長崎	-	-	-	/	/	/	원래	불교	浄土宗 大音寺
			1636									
③佐藤吉右 衛門尉	夫	32	長崎	-	前廉	長崎	?	?	×	1629- 32	19-22	法華宗 本連寺
			1610									
女房	妻	17	長崎	-	前廉	長崎	?	?	×	1629- 32	4-7	法華宗 本連寺
			1625									
④かみや傳 兵衛	夫	40	大村	-	幼少	大村	1627 이전	25 이전	◎	1629- 32	27-30	禪宗 洪泰寺
			1602									
女房	妻	32	五嶋	1616	6	長崎	1627 이전	17 이전	◎	1629- 32	19-22	浄土宗 大音寺
			1610									
長吉	子	15	長崎	-	-	-	/	/	/	원래	불교	?
			1627									
⑤竹山彦兵 衛	夫	71	京	1592	21	長崎	1633 이전	62 이전	?	1626- 28	55-57	真言宗 延命寺
			1571									
女房	妻	37	長崎	-	前廉	長崎	1633 이전	28 이전	?	1629- 32	24-27	一向宗 正覺寺
			1605									
伍朗	子	9	長崎	-	-	-	/	/	/	원래	불교	?
			1633									
⑥川崎屋組 右衛門尉	夫	60	高麗	1614	32	長崎 上町	1623 이전	41 이전	◎	1629- 32	47-50	一向宗 大光寺
			1582									

성명	관계	연령	生地	기리시탄 입교			혼인 추정		혼인 성사 여부	개종		단나사
			生年	연도	연령	장소	연도	연령		연도	연령	
女房	妻	53	高麗	1611	22	天川 (마카오)	1623 이전	34 이전	◎	1629- 32	40-43	一向宗 大光寺
			1589									
たつ	子	19	長崎	-	幼少	長崎	/	/	/	1629- 32	6-9	一向宗 大光寺
			1623									
⑦横瀬孫右 衛門尉	夫	53	長崎	-	幼少	長崎	?	?	○	1632	43	浄土宗 大音寺
			1589									
女房	妻	45	長崎	-	幼少	長崎	?	?	○	1633	36	浄土宗 大音寺
			1597									
⑧柏屋九左 衛門尉	夫	52	京	1627	37	長崎	1623 이전	33 이전	◎	1616- 25	26-35	法華宗 本連寺
			1590									
女房	妻	49	茂木	-	前廉	茂木	1623 이전	30 이전	◎	1629- 32	36-39	法華宗 本連寺
			1593									
ふく	女	19	長崎	-	前廉	長崎	/	/	/	1629- 32	6-9	法華宗 本連寺
			1623									
⑨堀喜兵衛	夫	38	長崎	-	前廉	長崎	1636 이전	32 이전	×	1629- 32	25-28	浄土宗 大音寺
			1604									
女房	妻	21	長崎	-	幼少	長崎	1636 이전	15 이전	×	1629- 32	8-11	浄土宗 大音寺
			1621									
堀喜兵衛 娘 いぬ	女	6	長崎	-	-	-	/	/	/	원래	불교	浄土宗 大音寺
			1636									
⑩大阪屋彌 右衛門尉	夫	58	京	1615	27	長崎	1619 이전	35 이전	◎	1616- 25	32-41	浄土宗 大音寺
			1584									
女房	妻	45	長崎	-	幼少	長崎	1619 이전	22 이전	◎	1629- 32	32-35	浄土宗 大音寺
			1597									
與三兵衛	子	23	長崎	-	幼少	長崎	/	/	/	1629- 32	10-13	浄土宗 大音寺
			1619									
⑪茂兵衛	夫	39	大村	-	幼少	大村	1636 이전	33 이전	?	1629- 32	26-29	一向宗 大光寺
			1603									
女房	妻	38	平戸	1613	9	長崎	1636 이전	32 이전	?	1629- 32	25-28	一向宗 大光寺
			1604									
ふく	女	6	長崎	-	-	-	/	/	/	원래	불교	一向宗 大光寺
			1636									
⑫善右衛門 尉	夫	60	筑後	1610	28	長崎	1615 이전	33 이전	◎	1626- 28	44-46	一向宗 光永寺
			1582									

성명	관계	연령	生地	기리시탄 입교			혼인 추정		혼인 성사 여부	개종		단나사
			生年	연도	연령	장소	연도	연령		연도	연령	
女房	妻	47	長崎	-	幼少	長崎	1615 이전	20 이전	◎	1629- 32	34-37	一向宗 光永寺
			1595									
長右衛門 尉	子	27	長崎	-	幼少	長崎	/	/	/	1629- 32	14-17	一向宗 光永寺
			1615									
⑬權左衛門	夫	58	諫早	1606	22	長崎	1610 이전	26 이전	◎	1629- 32	45-48	禪宗 洪泰寺
			1584									
女房	妻	60	高麗	-	幼少	長崎	1610 이전	28 이전	◎	1629- 32	47-50	禪宗 洪泰寺
			1582									
⑭ ⑬의 아들 七藏	夫	32	長崎	-	幼少	長崎	?	?	×	1629- 32	19-22	禪宗 洪泰寺
			1610									
女房	妻	20	高濱	-	前廉	高濱	?	?	×	1629- 32	7-10	禪宗 洪泰寺
			1622									
⑮庄右衛門	夫	40	天草	-	幼少	天草	1636 이전	34 이전	?	1626- 28	24-26	禪宗 洪泰寺
			1602									
女房	妻	38	長崎	-	幼少	長崎	1636 이전	32 이전	?	1629- 32	22-24	禪宗 洪泰寺
			1604									
ふく	女	6	長崎	-	-	-	/	/	/	원래	불교	禪宗 洪泰寺
			1636									
⑯十左衛門 尉	夫	33	嶋原	-	幼少	嶋原	1639 이전	30 이전	?	1629- 32	20-23	禪宗 洪泰寺
			1609									
女房	妻	26	長崎	-	幼少	長崎	1639 이전	23 이전	?	1629- 32	13-16	禪宗 洪泰寺
			1616									
十兵衛	子	3	長崎	-	-	-	/	/	/	원래	불교	禪宗 洪泰寺
			1639									
⑰仁介	夫	58	平戸	1620	36	長崎	?	?	◎	1626- 28	42-44	禪宗 洪泰寺
			1584									
女房	妻	62	高麗	1592	12	長崎	?	?	◎	1626- 28	46-48	禪宗 洪泰寺
			1580									
⑱甚左衛門 尉	夫	28	長崎	-	幼少	長崎	1638 이전	24 이전	×	1629- 32	15-18	禪宗 春徳寺
			1614									
女房	妻	28	筑後	-	幼少	長崎	1638 이전	24 이전	×	1629- 32	15-18	法華宗 本連寺
			1614									
せん	女	4	長崎	-	-	-	/	/	/	원래	불교	?
			1638									

성명	관계	연령	生地	기리시탄 입교			혼인 추정		혼인 성사 여부	개종		단나사
			生年	연도	연령	장소	연도	연령		연도	연령	
⑱庄次郎	夫	25	大村 1617	1622	5	大村	1638 이전	21 이전	×	1629- 32	12-15	禪宗 洪泰寺
女房	妻	23	長崎 1619	-	幼少	長崎	1638 이전	19 이전	×	1629- 32	9-12	法華宗 本連寺
新二郎	子	4	長崎 1638	-	-	-	/	/	/	원래	불교	?
⑳喜兵へ	夫	40	嶋原 1602	-	前廉	嶋原	1635 이전	33 이전	?	1629- 32	27-30	禪宗 洪泰寺
女房	妻	32	長崎 1610	-	幼少	長崎	1635 이전	25 이전	?	1629- 32	19-22	一向宗 大光寺
かめノ介	子	7	長崎 1635	-	-	-	/	/	/	원래	불교	?
㉑孫右衛門 尉	夫	59	高久 1583	1603	20	高久	1638 이전	55 이전	◎	1629- 32	46-49	一向宗 光永寺
女房	妻	60	高麗 1582	1600	18	長崎 下町	1638 이전	56 이전	◎	1629- 32	47-50	一向宗 光永寺
次郎	子	4	長崎 1638	-	-	-	/	/	/	원래	불교	一向宗 光永寺

- 주1) 혼인성사는 기리시탄 입교 후 개종 이전에 혼인한 부부로 한다.
- 주2) 조사 당시 부부 2인이 같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는(病死 등의 사유로) 혼인성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3) 유아의 사망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기록되어 있는 만이의 나이에서 역으로 계산한 혼인 추정 연령은 실제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주4) 幼少: 어릴 때. 前廉: 예전부터.
- 주5) 長崎奉行으로 재임(在任)한 기간. 長谷川權六: 1616-1625년, 水野河内: 1626-1628년, 竹中采女: 1629-1632년, 曾哦又左衛門尉: 1633년.
- 주6) /: 해당사항 없음. ◎: 그렇다. ○: 가능성 많다. ×: 아니다. ?: 모른다.

⑤ 竹山彦兵衛 부부: 아들(伍朗, 1633년생)이 첫 아들이라면 개종 후 혼인일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부부의 나이로 볼 때 출가나 병사한 자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부부가 개종(1626-32년) 하기 전 자녀가 있을 경우 혼인성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료로는 혼인성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⑥ 川崎屋組右衛門尉 부부: 부부가 조선인<sup>28)</sup>이며 아내는 1599년 히고 야쓰시로(肥後 八代,

현 구마모토현 소재)에 왔고 1611년 마카오(중국의 지명)에 팔려가 기리시탄이 된 이력이 기록되어 있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일본으로 끌려온 뒤 다시 중국으로 팔려간 기구한 운명의 소유자이나 1616년 다시 일본으로 와서 수년 후 기리시탄에게 시집 간 경우이다.<sup>29)</sup>

⑦ 横瀬孫右衛門尉 부부: 기리시탄이던 부모에서 자라난 남편을 보면 “출생지는 나가사키. 어려서부터 기리시탄으로 미즈노 가와치(水野河内) 봉행(奉行) 재임 시 개종하지 않은 이유로 1626년(37세) 에도(江戸)로 호송되어 6년간 체류한 후, 1632년 에도에서 정토종으로 개종하고 소가 히사스케(曾我古祐) 봉행 재임 시(1633년) 나가사키로 돌아와 다이온지(大音寺)에 등록…부모는 기리시탄이며…”<sup>30)</sup>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찍이 기리시탄 부모에서 태어난 아내를 보면 “출생지는 나가사키. 어려서부터 기리시탄이었지만 소가 봉행 재임 시(1633년) 이 마을에서 정토종으로 개종하여 다이온지에 등록…”<sup>31)</sup>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종(남편은 1632년 43세. 에도에서/아내는 1633년 36세. 히라도 마을에서)한 지역이 달라 개종 후 혼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기리시탄 신앙 환경에서 자라온 점과 남편의 신앙심 등을 고려한다면 그 보다는 개종 전에 혼인하였지만 개종 강제를 피해 남편은 에도로 도망가 6년을 버티다가 개종하였고, 아내는 이 마을에 남아 7년을 더 버티다가 결국 비슷한 시기에 개종한 경우일 것이다.

⑧ 柏屋九左衛門尉 부부: 본인의 입교 연도가 1627년인 점, 처자(妻子)의 개종연도 및 딸의 입교 연도 등을 볼 때 본인의 개종 연도 1616-25년은 오기로 보이며 1627년 이후가 될 것이다. 개종 전 혼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혼인성사로 본다.

⑨ 大阪屋彌右衛門尉 부부: 입교한 지 몇 년 후 혼인한 경우이며, 아들이 10-13세까지 기리시탄임을 볼 때 혼인성사에 해당할 것이다.

⑩ 仁介 부부: 남편의 경우 “출생지는 히라도 1620년(36세) 나가사키 이 마을에 와서 바로 기리시탄이 되었고 미즈노 가와치(水野河内) 봉행(奉行) 재임 시(1626-8년, 42-44세) 개종을

28)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서 일본으로 끌려온 남녀는 약 5만 명에 이른다. 이들 중에는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 다시 해외에 노예로 팔려간 자도 있고, 기리시탄으로 순교하여 복자(福者)가 된 경우도 다수 있다.

29) 年五拾三 右之女房

生國高麗之者、慶長四年肥後八代ニ參、同拾六年ニ長崎ニ參、則天川(マカオ)へ被賣渡きりしたんニ罷成、元和二年ニ歸宅仕…(九州史料刊行会 1965:90)

30) 年五拾三 横瀬孫右衛門尉

生所長崎之者、幼少らきりしたんニ而、水野河内様御代ニ宗旨之儀ニ付、御意ニ而寛永三年ニ江戸へ罷下、六年逗留仕、さる之とし江戸ニ而ころひ、浄土宗罷成、曾哦又左衛門尉様御代ニ長崎ニ罷下、爰元ニ而ハ大音寺ヲ頼申候…ニ親共ニきりしたんニ罷成…(九州史料刊行会 1965:91)

31) 年四拾五 右之女房

生所長崎之者、幼少らきりしたんニ而御座候へとも、曾哦又左衛門尉様御代ニ当町ニてころひ、浄土宗ニ罷成、大音寺ヲ頼申候…(九州史料刊行会 1965:91)



거부하자 산으로 호송된 후 시마바라(嶋原)에서 마쓰쿠라 시게마사(松倉重正)<sup>32)</sup> 앞에서 개종하여...<sup>33)</sup>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인(朝鮮人)인 아내는 “출생지는 고려. 51년 전(1592년, 17세) 나가사키 이 마을에 와서 바로 기리시탄이 되다. 미즈노 가와치 봉행(奉行) 재임 시(1626-8년, 46-48세) 개종을 거부하자 산으로 호송되어 시마바라에서 남편과 같이 개종하여...<sup>34)</sup>로 기록되어 있다. 부부가 함께 운젠의 온천 열탕 고문(地獄責)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개종하게 되었지만 개종 전 신앙으로 맺어진 관계임을 알 수 있다.

⑱ 甚左衛門尉 부부: 조선인 2세인 남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출생지는 나가사키(長崎). 어려서부터 기리시탄이었고 다케나가 우네메(竹中采女, 長崎奉行) 재임 시 에도 마을(江戸町)에서 (불교로) 개종...부모 모두 고려인...<sup>35)</sup>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어서 아내에 대해서는 “출생지는 부모와 같은 씨쿠고(筑後)이고...어려서 하마마치(濱町)에 양자로 와서 기리시탄이 되었고 다케나가우네메 재임 시 이 마을에서 개종하여...<sup>36)</sup>라고 기재되어 있다. 개종 연도는 1629-32년 사이로 동일하지만 개종한 곳이 서로 다른 것을 볼 때 혼인 연도는 개종 이후로부터 딸이 태어난 1638년 이전일 것이다. 따라서 혼인성사로 볼 수 없다.

⑳ 喜兵へ 부부: 기재된 아들(1635년생)은 개종(1629-32년) 후 태어난 것이지만 만일 더 일찍 태어난 자녀의 출생 연도가 개종 이전이라면 혼인성사가 성립된다. 그러나 그 상세를 알 수 없다.

㉑ 孫右衛門尉 부부: 양쪽이 18-20세에 기리시탄에 입교한 것과 양쪽이 46-50세에 남편과 함께 개종했다고<sup>37)</sup> 기재되어 있으므로 혼인성사에 해당한다.

위의 <표 1>은 개종 전 기리시탄이라고 기록된 2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성사 여부를 파악한 것인데 결과를 보면 절반에 가까운 10쌍이 된다. 그러나 실재는 더 많은 혼인성사가

32) 1627년 나가사키현 시마바라 반도 운젠(島原半島 雲仙)의 온천 열탕(熱湯) 고문·처형을 통하여 기리시탄의 개종에 앞장선 시마바라(島原)의 다이묘(大名).

33) 年五十八 渡邊忠兵衛かしや 仁介  
生所平戸之者、元和六年ニ長崎今町ニ參、則きりしたんニ罷成、水野河内様御代ニきりしたんころひ不申、山ニ入、嶋原ニ而松倉豊後様前ニ而ころひ... (九州史料刊行会 1965:123)

34) 年六拾八 右之女房  
生國高麗之者、五十一年以前ニ長崎当町ニ參、則きりしたんニ罷成、当町ニ而水野河内様御代ニきりしたんころひ不申、山ニ入、嶋原ニ而男同前ニころひ... (九州史料刊行会 1965:123)

35) 年廿八 石本新兵衛かしや 甚左衛門尉  
生所長崎之者、幼少らきりしたんニ而御座候へ共、竹中采女様御代ニ江戸町ニ而ころひ... 父母共ニ生國高麗... (九州史料刊行会 1965:124-5)

36) 年廿八 右之女房  
生所父母共ニ筑後之者、元来一向宗ニ而... 幼少ら濱ノ町へ養子ニ參、切したんニ罷成、竹中采女様御代ニ当町ニ而ころひ、法華宗ニ罷成、本連寺を頼申候。 (九州史料刊行会 1965:125)

37) 年六拾 孫右衛門 女房  
尉生國高麗之者... 竹中采女様御代ニ男同前ニころひ... (九州史料刊行会 1965:128)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거나 기록되어 있더라도 이보다 먼저 태어난 자녀가 출가 또는 병사 등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부 혼인 연대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혼인성사를 가늠하기 곤란한 점이다. 그리고 현재의 종교란에 한 사람의 기리시탄도 보이지 않지만 이는 겉으로 막부의 개종정책에 순응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리시탄 신앙을 이어간 자가 많은 점이다. 아울러 기리시탄이면서 15세 연상의 일향중 신자에게 시집가서 셋집(借家)에 살며 5남을 낳은 산고로(三五郎)의 아내라든지 혼인 전 기리시탄에서 개종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보면 당시의 경제적·종교적 상황이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 4. 『기리시탄 일가 인별 대장(宗門心得違者一家内限人別帳)』 (1805년)에 나타난 혼인성사

1805년에 일어난 아마쿠사 검거 사건(天草崩れ)<sup>38)</sup>으로 아마쿠사(天草) 4개 촌에 살던 잠복 기리시탄이 발각되어 검거된 일이 있는데(<표 2> 참조) 이 중 다카하마촌(高浜村) 신자들의 진술 기록인 『기리시탄 일가 인별 대장(宗門心得違者一家内限人別帳)』을 통하여 혼인성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2> 4개촌 인구와 검거된 잠복 기리시탄 인구(平田正範 2001:204)

지역	총 인구	잠복 기리시탄 인구(명)	기리시탄 비율(%)
이마토미촌(今富村)	1,838	1,047	57
사키쓰촌(崎津村)	2,368	1,710	72
오에촌(大江村)	3,143	2,132	68
다카하마촌(高浜村)	3,320	316	10
계	10,669	5,205	49

38) 이 외에도 오무라(大村) 지역의 고리 검거(郡崩れ, 1657년), 오이타현(大分県) 지역의 붕고 검거(豊後崩, 1660-82년), 아이치현(愛知県) 지역의 노비 검거(濃尾崩れ, 1661년), 우라카미 지역의 우라카미 첫 번째 검거(浦上一番崩れ, 1790년)에서 우라카미 네 번째 검거(浦上四番崩れ, 1867년)까지, 동 지역 고바 검거(木場崩れ, 1867년), 고토 지역의 고토 검거(五島崩れ, 1868년) 등이 있다.

<표 3> 아마쿠사 다카하마촌 관련 조사 대장

구분	진술자	요지
	진술한 인원	
①『기리시탄 일가 인별 대장(宗門心得違者一家内限人別帳)』 (九州史料刊行会編 1959:1-64)	잠복 기리시탄	검거된 자의 이름, 호주, 호주와의 관계, 나이, 가족 인원, 검거된 총인원 등을 기록한 장부.
	316	
②『타촌 기리시탄 가정에서 다카하마촌 비(非)기리시탄 가정으로 출가한 자들의 진술서(他村心得違之家ら高浜村異法信仰不仕家江縁付者共口書)』(九州史料刊行会編 1959:147-156)	시집 온 여자	자신은 기리시탄이 아니었으며, 이곳에 와서는 시집의 종교인 불교를 신앙하고 있다는 진술.
	22	
③『기리시탄 가정에서 비기리시탄 가정으로 출가 후 비기리시탄이 된 자(心得違之家ら心得違不致家ニ縁付候以後心得違之儀不仕候分)』 (古野清人 1973:209-210, 재인용)	시집 온 여자	기리시탄 가정에서 비기리시탄 가정에 시집 온 이후로는 비기리시탄이 되었다는 진술.
	21	
④『기리시탄 가정에서 비기리시탄 가정으로 출가한 자들의 진술서(心得違之家ら異法信仰不仕家江縁付者共口書)』 (九州史料刊行会編 1959:169-179)	자녀	기리시탄 가정에서 시집 온 자의 자녀들이 자기 어머니로부터 개종 권유를 받지 않았다는 진술.
	37	
⑤『기리시탄 가정에서 비기리시탄 가정으로 출가한 자들의 남편 진술서(異法信仰不仕家江心得違之家ら縁付参候ニ付其夫共口書)』 (九州史料刊行会編 1959:163-168)	남편	남편인 자신은 원래 비신자이며, 아내로부터 개종 권유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
	17	
⑥『비기리시탄 가정에서 기리시탄 가정으로 출가한 자들의 진술서(異法信仰不仕家ら心得違之家江縁付候者共口書)』 (九州史料刊行会編 1959:157-162)	시집 온 여자	남편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개종하지 않았다는 진술.
	11	

<표 3>에서 대장 ②·③을 비교해 보면 20명이 이름과 나이가 일치하여 동일 인물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두 대장은 시집 온 23명에 대한 조사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기리시탄 가정에서 비기리시탄 가정으로 시집 온 경우로 시집의 종교를 따르고 있다는 진술이다. 또한 대장 ④·⑤는 기리시탄 가정에서 비기리시탄 가정에 시집 온 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남편이나 자녀를 취조한 결과 아내나 어머니로부터 기리시탄 신앙을 권유받은 적이 없다는 진술 내용이다. 신빙성이 희박한 진술일 것이며 이는 검거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유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대장 ⑥은 기리시탄 남편으로부터 개종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한 아내 11명 중 남편이 검거된 자는 10명이다. 이는 진술자 도라(とら)<sup>39)</sup>의 남편이 검거자 명단에 발견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상세는 알 수 없다.

그러면 혼인성사의 수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일까. 검거된 총 316명 중 부부는 36쌍이다. 이는 부부 중 한쪽만이 신자이거나 사별 등으로 인해 부부가 같이 검거된 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호주 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기리시탄 조사 진술서장(宗門心得違調方口上書帳)』(古野清人 1973:211-228, 재인용)에는 신앙을 자기에게 전수해 준 자도 함께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 신앙 조직의 세례 담당자, 아내 등 다양하다. 다만 아내로부터 전수받은 6명이 있는데 이 중 2명만이 아내와 같이 검거된다. 이는 아내와의 사별이나 아내의 개종을 그 이유로 들 수 있다. 아무튼 남편 2명은 혼인 후 기리시탄이 되었으므로 혼인성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면 혼인성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34쌍이 될 것이다.

물론 34쌍 중에는 혼인 후 기리시탄이 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신앙을 전수받은 시기를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내로부터 전수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 전 신자인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인 전 비기리시탄인 경우 혼인 후에도 비기리시탄이며, 혼인 전 기리시탄인 경우에도 혼인 후 비기리시탄이 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 혼인 후 기리시탄으로의 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기리시탄 가정이라면 유아세례를 주는 것이 관습이므로 부부로 검거된 자들의 대부분은 기리시탄 끼리의 혼인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기리시탄임을 부정하여 검거를 피하려는 의도가 많았을 것이며, 혼인성사 후 가정을 이루다가 한 쪽 또는 양쪽의 죽음으로 인해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한다면 혼인성사는 증가할 것으로 본다.

아무튼 잠복시대 말기인 1805년 아미쿠사 검거 당시 4개 촌에 5천여 명의 잠복 기리시탄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해금 후 교회로 돌아온 자는 1,147명에 이르고(1917년 현(縣) 통계 기준), 가쿠레기리시탄으로 남은 자들은 1938년 자취를 감추게 된다. 신앙의 변용과 굴곡이라는 상황에 동화되지 않고 혼인성사를 전승하며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39) 密兵衛女房 とら 当丑廿八歳(九州史料刊行会編 1959:158)

## 5. 마무리

1614년 전국적인 금교령의 공포(公布)와 이에 따른 기리시탄 색출을 위한 일련의 검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대상은 평민으로부터 천민 계급인 에타(穢多)·비인(非人)에까지 미치게 되고, 동시에 해외 추방을 피해 선교지에서 종신 서원을 다짐한 소수의 사제들은 잠복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자 기리시탄(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그들만의 비밀 공동체를 만들어 운용하게 되는데 내혼을 통한 조직의 유지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혼인성사도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소토메(外海)·고토(五島)·나가사키(長崎) 등지의 잠복 기리시탄(잠복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전승되어 온 『천지개벽(天地始之事)』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그들 스스로의 답이 담겨있는 전승이야기로 볼 수 있다.

나가사키 히라도 마을(長崎 平戸町) 주민을 대상으로 한 종교조사대장인 『히라도 마을 인별 대장(平戸町人別生所帳)』(1642년)을 통하여 개종 전 기리시탄이던 21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혼인성사 여부를 파악해 본 결과 10쌍이 성립된다. 조사 당시는 잠복시대 직전으로 이미 극소수의 사제만이 잠복 사목을 할 정도로 신앙의 지도가 전무한 상태임을 고려할 때 기리시탄 교리의 가르침대로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리시탄 일가 인별 대장(宗門心得違者一家内限人別帳)』(1805년)의 경우 검거된 아마쿠사 다카하마촌(天草 高浜村)의 기리시탄 총 316명 중 혼인성사는 34쌍이 된다. 이들 두 문헌의 자료를 중심으로 혼인성사가 성립하는 수를 각각 도출해 낸 것이지만 한정된 자료로 인해 혼인 연대 추정이 어려운 관계로 혼인성사를 가능하기 곤란한 점과 혼인성사를 이루었더라도 조사 당시 배우자가 없거나 부부 양쪽이 없을 경우가 있고 발각을 두려워하여 위증하기도 했을 것이므로 실제 혼인성사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신자끼리의 혼인이 원칙이라는 기리시탄의 가르침은 동촌(同村)이나 타촌(他村) 비기리시탄과의 통혼으로 일부 이탈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지만, 혼인성사는 다른 성사와는 달리 부부 스스로 성사를 이루는 것이므로 기리시탄의 교리서 『도치리이나 기리시탄(どちりいな きりしたん)』(1591)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칠성사(さんたゑけれじやの七のさからめんとの事)」 중의 하나인 혼인성사는 전승되어 온 것이다. 아울러 모든 잠복 기리시탄에 있어 혼인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리시탄의 가르침을 어긴 자들로 치부하기 어려운 것은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혼인성사를 이루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박양자(2008)『일본 키리시탄 순교사와 조선인』순교의 맥
- 浦川和二郎(1928)『切支丹の復活 前編』日本カトリック刊行会
- 海老沢有道他校注(1976)『キリシタン書・排耶書』日本思想大系25, 岩波書店
- 紙谷威広(1986)『キリシタンの神話的世界』東京堂出版
- 九州史料刊行会編(1959)『天草古切支丹資料(三)』  
\_\_\_\_\_ (1965)『長崎平戸町人別帳』
- 清水紘一(1985)『キリシタン禁制史』教育社
- 塚田孝(2013)『大阪の非人—乞食・四天王寺・転びキリシタン』筑摩書房
- 浜崎献作(2003)『天草の伝承キリシタンとオラシヨ—その変容と消滅 / 石に遺された信仰の証』サンタ・マリア館
- 平田正範(2001)『天草かくれキリシタン宗門心得違い始末』サンタ・マリア館
- 古野清人(1966)『隠れキリシタン』至文堂  
\_\_\_\_\_ (1973)『古野清人著作集5 キリシタニズムの比較研究』三一書房
- 宮崎賢太郎(2008)『カクレキリシタン オラシヨ — 魂の通奏低音』長崎新聞社
- 村上直次郎訳・渡辺世祐註(1970)『耶穌会士日本通信 下巻』雄松堂書店
- 村田明久(2009)『日本建築学会大会学術講演梗概集(東北)』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ebook.cbck.or.kr/gallery/view.asp?seq=167968&path=111027141705>(검색일 2015. 1.20)
- C3TV온라인성경 <http://bible.c3tv.com/bible/read/read.asp?MenuCd=2>(검색일 2014. 6.20)
-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http://www.weblio.jp/wkija/content/%E5%AE%97%E9%96%80%E6%94%B9\\_%E5%AE%97%E9%96%80%E6%94%B9%E5%BD%B9](http://www.weblio.jp/wkija/content/%E5%AE%97%E9%96%80%E6%94%B9_%E5%AE%97%E9%96%80%E6%94%B9%E5%BD%B9)(검색일 2014.11.20)

---

논문투고일 : 2015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5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5년 04월 08일  
2차 수정일 : 2015년 04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5년 04월 20일

---

〈要旨〉

잠복 기리시탄(潜伏キリシタン)의 혼인성사(婚姻聖事)

1614년 전국적인 ‘기리시탄 금교령’이 내려지자 사제들은 잠복 사목 활동을 하다가 추방되거나 순교 당하게 된다. 특히 한 사람의 사제도 없는 상황에서 금교령이 해제될 때까지 신자들 스스로 비밀 조직을 만들어 세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식(儀式)과 교리, 기도문 등을 세대를 거듭하여 전승해 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잠복 기리시탄’이라고 하고 그 기간을 잠복시대(1644-1873)라 한다.

본고는 기리시탄시대(1549-1644)의 혼인성사가 잠복시대에도 전승되어 왔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통혼(通婚)에도 불구하고 비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된 이유는 주로 공동체 내혼(內婚)이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료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기리시탄 상당수에서 혼인성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사제의 부재와 지속적인 탄압의 영향으로 변용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1873년 해금(解禁)을 맞아 기적적으로 교회로 돌아온 자도 많다.

A study on the Secret-Christians' sacrament of matrimony

The edict against Christianity in 1614 caused Secret Padres to be banished or martyred. Especially after the edict, no padres were in Japan. Secret-Christians organized secret communities and transmitted baptism, ceremonies, doctrines, prayers, and so on until the revocation of the edict. This period today is called Secret Period(1644-1873).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sacrament of matrimony in Christian Period(1549-1644) was transmitted in Secret Period. In spite of marriage, the reason of maintenance of secret communities was community intermarriage. According to the historical materials, the sacrament of matrimony was done by most of the Christians. Some transformation of religion appeared because of the long-term absence of padres and the suppression. Nevertheless, many people returned to church after the revocation of the edict in 1873.